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5월 미 전체 소매 판매 상승…높은 휘발유가에도 불구
- CNBC: 오늘 연준 만장일치 가능성…금리 동결할 듯
- Politico: 오늘 연준 금리 정책 발표에서 연준 새 의장 신중할 듯

[미국 금융]
- WSJ: 미 소셜시큐리티 위험…2032년 수령액 20% 삭감 전망

[물류]
- WSJ: 미 기업들, 공급망 리스크에 적응한다

[중동 전쟁]
- CNBC: 트럼프 “이란과의 양해각서 내용 최종 아니다”
- WSJ: 흐르무즈 위기가 세계 경제에 남긴 것은?

[오일]
- WSJ: IEA “중동 평화협정 체결 시, 원유 공급 과잉 우려”

[무역 전쟁]
- Bloomberg: G7, 중국 등의 희토류 수입 비중 60% 이하로 제한에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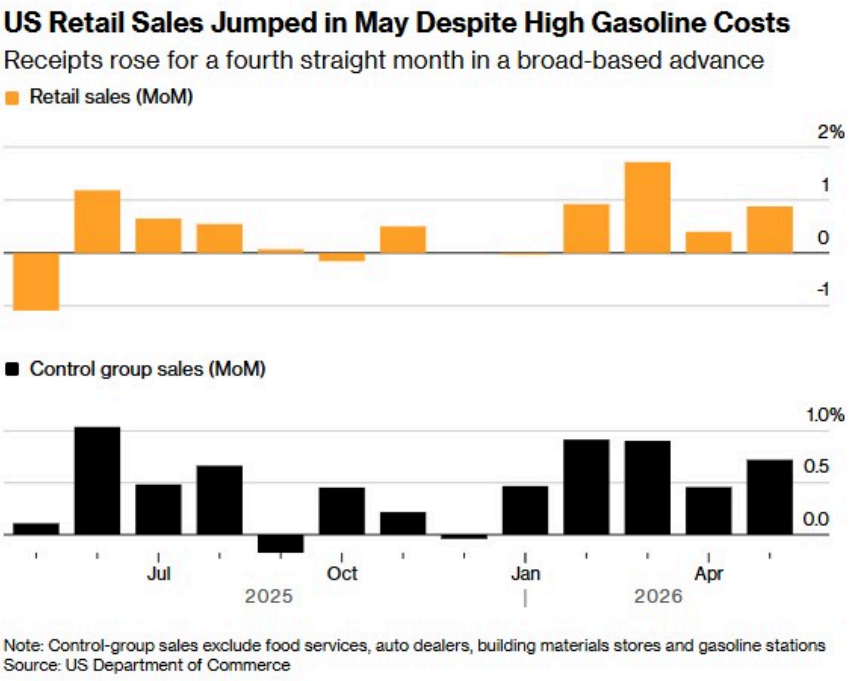
[주택]
- CNBC: 모기지율 하락에도 불구, 모기지 신청 건수 하락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Retail Sales Rose in Broad Advance Despite Higher Gas Prices
5월 미 전체 소매 판매 상승…높은 휘발유가에도 불구

- 미 소비자들이 지난 5월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출을 늘리며, 휘발유 가격 상승세 속에서도 견고한 소비력을 보여줬다.
- 오늘 수요일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,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.9% 늘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.
-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유소 매출이 3.4% 증가해 전체 소매 판매를 이끌었다. 주유소 매출을 제외한 소매 판매 역시 0.7%의 탄탄한 증가세를 기록했다.



기사

CNBC: More united Fed board seen at Warsh's first meeting, according to Kalshi traders
오늘 연준 만장일치 가능성…금리 동결할 듯

-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연준 표결이 만장일치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 파월 전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4월, 30여 년 만에 최다인 4명이 반대표를 던졌던 것과 대조적이다.
- 시장 트레이더들은 이번 12명 위원의 투표에서 반대표가 '0표'일 확률을 70%로 점쳤다.
- 한편 연준은 미국-이란 전쟁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추이를 주시하며,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.50%~3.75%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Politico: Trump is demanding rate cuts. Kevin Warsh's first challenge may be saying no.
오늘 연준 금리 정책 발표에서 연준 새 의장 신중할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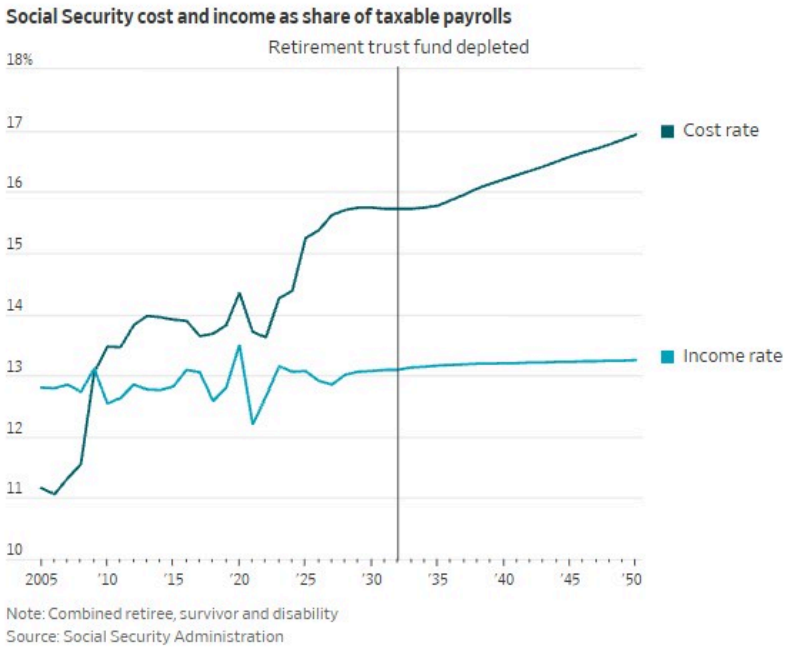
-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오늘 수요일 취임 후 정례회의 직후 첫 공개 연설에 나선다. 그러나 그가 말을 많이 아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.
- 그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. 현재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승, 증시 호황, 채권 시장 불안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.
- 시장은 향후 통화정책 지침을 갈망하고 있으나, 워시 의장은 평소 연준 인사들의 과도한 발언이 오히려 시장의 노이즈를 키운다고 비판해 왔다. 이에 따라 이번 연설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Social Security Has a Big Problem. It's Already Here.
미 소셜시큐리티 위험…2032년 수령액 20% 삭감 전망

- 경고에 그쳤던 '은퇴 위기'가 현실로 다가왔다. 미 사회보장국은 노령·유족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되어 수령액이 20% 이상 자동 삭감될 것으로 추정했다.
- 연금 재정은 이미 16년 전 급여세 수입이 지출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으며, 5년 전부터는 기금 총액마저 감소세다.
- 지난해에만 적자 폭이 2000억 달러에 달해 기금 잔액이 2조 3400억 달러로 줄었으며, 향후 재정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.



기사

[물류]

WSJ: U.S. Companies Stop Waiting for Supply Chains to Return to Normal
미 기업들, 공급망 리스크에 적응한다

- 미국 기업들이 이란 전쟁, 무역 협상 등 글로벌 공급망 격변에 대응해 더 유연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.
- 이와 관련 작년에 미국 기업들이 지출한 물류비는 전년 대비 1% 감소한 2조 4천억 달러로,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7.8%로 하락했다.
- 그러나 올해 들어 트럭 운송 요금이 오르고, 미국 서안행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한 달 새 48% 가까이 급등하는 등 물류비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CNBC: Trump says U.S. will ‘go right back to dropping bombs’ if he doesn’t like Iran deal
트럼프 “이란과의 양해각서 내용 최종 아니다”

- 트럼프는 오늘 수요일, 중동 갈등을 끝내기 위해 제안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"최종안이 아니다"라고 밝히며,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시 "폭탄 투하"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압델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이같이 말했다.
- 이번에 제안된 합의안은 이번 주 제네바에서 서명될 예정이다.

기사

WSJ: Five Things the Hormuz Crisis Taught Us About the Global Economy
호르무즈 위기가 세계 경제에 남긴 것은?

- 글로벌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피했다.
- 많은 국가가 전략 비축유를 활용해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, 글로벌 원유 시장은 대체(alternative) 수출 경로를 확보하며 적응해 나갔다.
- 중국은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수입을 줄였고, 인공지능 붐이 에너지 위기로 인한 타격을 상쇄했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Supply Could Far Outstrip Demand Growth if Middle East Peace Deal Holds, IEA Says
IEA “중동 평화협정 체결 시, 원유 공급 과잉 우려”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미국과 이란의 잠정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원유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이번 협정으로 대이란 석유 제재가 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해제될 전망이다.
- 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폭 전망치를 기존 하루 42만 배럴에서 1백10만 배럴로 대폭 확대했다. 반면, 내년 원유 공급량은 하루 800만 배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.
-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무역 전쟁]

Bloomberg: G7 Aims to See China Supply No More Than 60% of Rare Earths
G7, 중국 등의 희토류 수입 비중 60% 이하로 제한에 합의

- G7 정상들은 오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희토류 비중을 전체의 60% 이하로 제안하기로 합의했다.

- G7 정상들은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 이후에는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빨리 50%까지 추가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방침이다.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.
- 또한,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확정하기로 약속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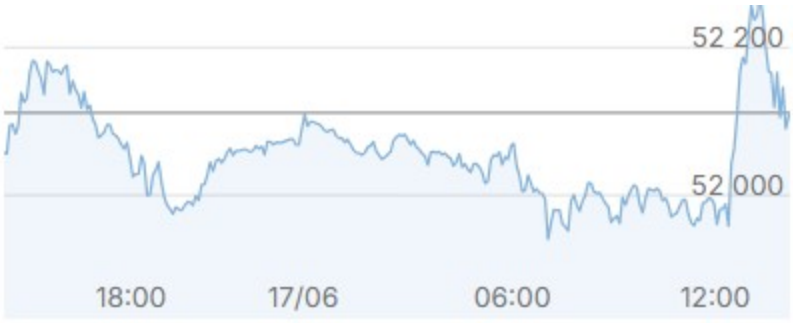
[주택]

CNBC: Mortgage rates are now falling but demand is still weaker
모기지율 하락에도 불구, 모기지 신청 건수 하락

- 미 모기지은행협회(MBA) 계절조정 지수에 따르면, 지난주 모기지 총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3.8% 감소했다.
-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계약금리는 6.60%로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모기지율은 상승하지 않는데 모기지 신청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.
- 한편, 리파이낸싱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5% 줄었으나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7% 높은 수준을 보였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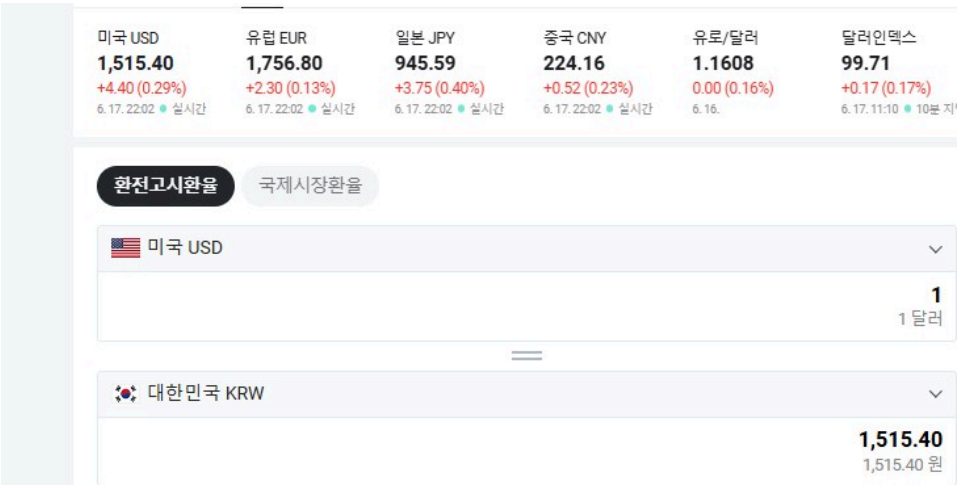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138.50	+135.6	+0.26%
US 500	7,509.30	-2.3	-0.03%
Dow Jones	52,126.67	+127.00	+0.24%
S&P 500	7,508.98	-2.37	-0.03%
Nasdaq	26,335.91	-40.43	-0.15%
S&P 500 VIX	16.90	+0.49	+2.99%
Dollar Index	99.445	+0.166	+0.1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25/32	4.925	-0.021
10-Year Note	4.375	1/32	4.435	-0.010
7-Year Note	4.25	0/32	4.292	-0.005
5-Year Note	4.125	0/32	4.170	0.007
3-Year Note	4.125	0/32	4.111	0.007
2-Year Note	4	0/32	4.073	0.005
1-Year Bill	0	0/32	3.857	0.016
6-Month Bill	0	0/32	3.807	0.000
3-Month Bill	0	0/32	3.720	0.000
1-Month Bill	0	0/32	3.639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